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5월 24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국제협력과	담당자	• 중국교류팀장 손혜원 ☎440-3246 • 담당자 황영란 ☎440-3248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중국자매우호도시 허난성과 기업영상교류회

- 인천 기업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교류회 -
-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중국 시장 온·오프라인 판매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자매우호도시인 허난성과 코로나19로 위축 상태에 있는 인천 기업들의 중국 판로 개척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-허난성 기업영상교류회를 5월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인천상공회의소, 코트라 인천지원단, 정저우무역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업교류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(주)엘에스화장품, (주)원스타 인터내셔널, 위드앤주식회사 등 인천 소비재기업 15개 기업과 중국 허난성 소재 15개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다.

또한 양 도시 대표 중견기업이 참가해 기술력과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의미깊은 시간도 이어졌다.

참가 기업은 인천상공회의소와 정저우무역관의 시장성조사 결과 등

사전 매칭을 통해 일대일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는데, 상담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온·오프라인으로 내수 판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

개막식에서는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허난성 외사판공실 푸징(付靜) 주임이 참석해 각 도시의 산업현황 등을 소개하고,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양 도시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,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인천시와 허난성이 더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할 것에 뜻을 같이했다.

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이번 허난성과의 교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에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인천시와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 주요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중국 허난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교통·물류산업의 요충지로 높은 성장률과 식품가공업, 자동차·장비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, 중국 내륙에 위치해 정저우-유럽 화물열차 등 교통물류인프라가 발달했고 높은 한류 선호도와 소비 트렌드를 갖춘 도시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7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